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권고 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 『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건축사등록원』, 『건축사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회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례지 격주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KIRA NEWS 제공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정부포상 추천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도건축사협회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명함판사진 2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회비안내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 분	납 부 내 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300만 원(입회 시 1회) · 월정회비 : 3만 원(매월) · 시·도건축사회 회비(입회비 및 월정회비) : 해당 시·도건축사회 회칙에 따름	시·도건축사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 원(가입시 1회) · 연회비 : 6만 원	

2. 회비 사용처

- 입회비 및 정회원(준회원) 회비 : 건축문화발전 및 회원권익증진, 협회조직관리 운영자금 등

■ 본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02)3415-6855	대 전	(042)485-2813~5	(042)485-2818	충 남	(041)338-4088	(041)338-4188
서 울	(02)581-5715~8	(02)523-2284	울 산	(052)274-8836	(052)268-8837	전 북	(063)251-6040	(063)251-6048
부 산	(051)633~6677	(051)634-2966	세 종	(044)862-6336	(044)862-6226	전 남	(061)285-7563~4	(061)285-7567
대 구	(053)753-8980	(053)756-9049	경 기	(031)247-6129~30	(031)242-7072	경 북	(054)859-8170	(054)859-8175
인 천	(032)437-3381~4	(032)437-3385	강 원	(033)254-2442	(033)255-2083	경 남	(055)246-4530	(055)245-4530
광 주	(062)521-0025~6	(062)528-0026	충 북	(043)223-3084~6	(043)223-3089	제 주	(064)752-3248	(064)756-324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실적팀(☎ 02-3415-685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걸리버 여행기, 네 종족들

Gulliver's Travels, Four Races

글. 홍성용
Hong, Sungyong
본지 편집국장

걸리버 여행기를 동화로 알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저자 조너선 스 위프트는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이 책을 출판했다. 풍자의 신랄함은 출판사가 몰래 수정할 정도였다.

스위프트가 바라본 18세기 영국은 문제가 많은 나라였고, 비판의 대상이었다. 걸리버 여행기는 본인이 소속된 사회 전체를 유머와 냉소적 비유로 날카롭게 풍자하는 책이었다. 물론 그의 우화에 나오는 가공의 나라들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아이들의 동화로 착각하기도 한다. 아둔한 사람들은 흔히들 숨겨진 은유와 위장된 본질, 핵심을 모른 채 이 이야기를 인용하곤 한다. 그것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지만.

갑자기 우리 사회에 대한 언론의 증계를 보면서 걸리버의 세계가 떠올랐다. 걸리버의 나라를 보면 딱히 18세기 영국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순된 존재와 사회를 떠올리게 한다. 사람 사는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여전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거인국과 소인국만 알지만, 그의 책에서는 상상의 나라를 네 곳이나 방문한다.

첫 번째로 방문한 소인국 '릴리퍼트'에 사는 이들의 평균 키는 약 15센티미터다. 이들은 순진하고 겁이 많지만, 명분 없는 것에 집착하고 은근히 욕망 덩어리들이다.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국민들의 키가 약 30미터에 이르는 거인국 '브로브딩낙'이다. 이곳에서 걸리버는 인격체가 아닌 장난감 취급을 받으며 돈벌이 대상이 된다.

세 번째로 도착한 나라는 하늘을 나는 '라퓨타'라는 세상이다. 이곳은 발달



한 과학으로 지상을 통치하는 왕족의 세계다. 무용한 지식으로 남성우월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이들은 폭력적으로 지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스위프트의 풍자 백미는 라퓨타라는 명칭에 있다. 지적 허영으로 가득하며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허상과 명분을 내세우는 고등생명체가 사는 나라 이름이, 스페인어로는 '창녀'를 지칭한다. 당시 영국 계급의 정점에 있던 귀족과 왕족에 대한 신랄한 풍자다.

네 번째로 배가 난파되어 도착한 곳은 인간을 지배하는 말들의 세계다. 후이능으로 불리는 말들은 인간을 야후라고 부르며 짐승처럼 다루고 있었다.

외향은 말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이들은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이자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없는 이상적 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후이능의 세계를 이상적인 유토피아적 세상으로 그린 걸리버는 하필이면 왜 그 대상을 인간이 아닌 말의 모습으로 표현했을까? 또 어째서 인간을 가축처럼 욕망과 욕구의 존재로 묘사했을까?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문득 우리 건축계가 중첩되는 건 왜일까? 엘리트라는 허영과 지적 오만함에 워선적으로 떠들어대며 나선 이들도 있고, 우물 안이 좋다고 바깥은 모른다는 우물 안 개구리도 있다. 그런가 하면 돈에 대한 욕망과 생존이라는 핑계로 법과 규칙을 무시하는 위반자들도 많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묵묵히 법과 규칙 아래에서 조용히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순진한 건축사들이 가장 많다. 우리는 이렇게 조용히 법과 규칙을 준수하면서 책임을 부담하는 대다수 건축사를 위해야 한다. 비록 관료들이, 정치인들이, 건축사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칼자루를 휘둘러도 참고 설득해야 한다. 어쩌라, 그들의 공부가 부족함을 탓하기엔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힘이 너무 센 사람들이다.